

'학생중심 미래교육 아카데미' 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오늘부터 내달 10일까지 4차례 부모-자녀 간 관계 증진·학습 동기 유발 등 강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4회에 걸쳐 '2024 학생중심 미래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부모-자녀 간 관계 증진부터 학습 동기 유발, 미래 교육 준비 방법까지 실사구시적인 강의로 운영될 예정이다.

첫 강연은 오는 7일 오후 7시 학습권 실행 전문가 단국대학교 윤미선 교수를 초청해 '공부하기 싫은 마음? 학습동기유발 전략으로 움직이기'를 주제로 자녀의 학습에 긍정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공유한다.

2회차는 21일 오전 10시 교육부와 연계한 찾아가는 교육정책서비스로 운영된다. 김창기 정신건강전문가가 '우리 아이 마음건강 키우기'를 주제로 강

의를 하고, 가수 브로콜리 너마저의 윤덕원이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2일 오후 7시에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시대 전문가인 최재봉 성균관대 교수가 'AI시피엔스 시대 생존 전략? 2024 인공지능 시대 개막, 나의 미래준비는?'이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12월 10일 오후 7시에는 EBS 정승익 강사가 '사교육을 줄이는 자기주도학습법'을 주제로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강의는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열리며, 참가 희망자는 전북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아카



데미가 자녀와 더 잘 소통하고 미래에 함께 대비하는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치즈과학고, 학교기업 생산 제품 전용판매 공간 마련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교장 김운하)가 학교기업 생산 제품 전용판매 공간을 마련했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치즈과학고 학교기업인 폼트는 치즈N 스킨이 '폼트는 치즈N몰'(<https://cheesschool.co.kr/>)을 구축했다.

2017년 설립된 학교기업 폼트는 치즈N 스킨을 학교 내 설립된 유가공 제조시설로 교육 및 실습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농업 관련 식품산업의 전문 인력 배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낙농업 분야 후계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캐시 클래스 동아리 시제품 제작 워크숍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2024년 전국대회에서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친환경·고품질·기능성 유가공식품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 학생들에게는 기업 현장의 신지식을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한편 학교기업은 임실군에서 생산한 신선한 원유를 사용해 HACCP 인증을 받은 학교 내 생산기공 시설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

플레인 요거트, 스트림 치즈, 할루미 치즈 등 이 학교기업 생산된 제품은 지역축제, 임실N 치즈축제, 롯데백화점 팝업스토어, 홈페이지 판매 등에서 다양한 수의 창출로 학교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도내 유일한 협약형 특성화고인 한국치즈과학고의 학교기업 '폼트는 치즈N몰' 운영을 환영한다"면서 "이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 창업가를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중 교류의 새로운 장... 한중미래포럼 창립식
지난 5일 오전 11시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한중미래포럼 창립식'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창호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국립군산대학교 제공)

전북대 중앙도서관, 내일부터 한달간 '사색의 숲, 예술을 품다' 프로그램 진행

11월, 책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으로 물들다

학생·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글로컬대학 30 사업 일환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오는 8일부터 한 달간 '사색의 숲, 예술을 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도서관 앞 잔디광장에서 학생과 지역인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으며 사색하고, 매주 금요일 밤에는 클래식, 포크, 재즈 등 음악 공연과 작가와의 토크콘서트도 펼쳐진다.

6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캠퍼스를 지역과 지역 대학생들에게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과 지난해 손을 잡았다.

먼저 8~15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전북대 중앙도서관 앞 잔디광장은 큰 도서관으로 변신한다. 주변에는 독서 관련 부스가 설치되며, 잔디밭에는 누구나 편하게 앉아 책을 읽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8일, 15일, 22일, 29일 등 매주 금요일 야간에 독서와 함께하는 다양



한 공연과 토크콘서트 등의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8일에는 마술극단 다채와 김성수 모던재즈트리오가 즐거움과 가을날에 어울리는 재즈의 낭만을 선사하며, 15일에는 가수 하림이 강연을 펼친다. 22일에는 김민식 PD의 토크콘서트와 김운성 트리오의 공연이 예정돼 있고, 29일에는 오은하 재즈트

리오와 재즈보컬 김다혜 고니밴드가 무대에 오른다.

특히 공연에 나서는 이들은 대부분 지역 문화예술인이다. 이는 지역 예술인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지역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역문화를 육성하는 국가거점대학의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에 전북대는 지역예술 창작물 마당도 중앙도서관 일원에서 마련했다. 공예, 미술, 패션, 먹거리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창작물을 홍보하고, 지역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되는 등 지역민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플리마켓'도 준비했다.

이 밖에도 행사 기간 내내 전북대 중앙도서관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을 지향하는 전북대가 지역민과 문화로 하나 되는 기회를 만들고자 문화관광재단과 가을날 문화행사를 마련했다"며 "대학이 가진 우수 인프라를 지역과 공유해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문화를 육성하는 데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제약공학과, 산업별 역량체계 기반 교육과정 인정

의약품 분야 인정서 받아

우석대학교 제약공학과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24년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 교육과정 인정서'를 받았다.

6일 우석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소프트웨어 △의약품 △여행 △숙박 △산림사업 △지도 △공공방물관리 등 5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22개 대학의 23개 교육과정에 대해 인정서를 수여했다.

SQF는 산업분야별 통용되는 표준직무와 직무 수준별 요구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을 활용해 구체화하고, 교육·훈련·자격과 연계한 체계를 말한다.

한갑훈 제약공학과장은 "의약품 분야에서 인정서를 받은 우리 학과는 그동안 자체에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을 비롯해 대학의 LINC 3.0

사업에 적극 참여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 의병과 미래 공동체'

전주대, 15일 인문포럼 개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오는 15일 '전북 의병과 미래 공동체'라는 주제로 인문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북연구원,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인문포럼은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서정화 센터장의 사회로 역사콘텐츠학과 김건우 교수가 '한말 전북 의병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 변주승 원장(역사콘텐츠학과 교수)이 '전북 의병의 연구 방향과 미래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김건우 교수는 가장 치열했던 한말 전북 의병의 발흥과 서훈 성과, 역사적 의의를 새롭게 조명한다. 또 변주승 원장은 전북 의병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전북 의병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광복회 이강안 지부장은 "순국선열의 날은 매년 다가온다. 의병에 만 그치지 말고 우리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흔적을 추적하고 밝힐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



원을 바란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도민들도 선열들의 공렬을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수요응답형 강좌 '소담소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인문 강좌 '온다라 인문아카데미'와 공대생을 위한 인문학 특강 '문공겸장(文工兼掌)'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HK+연구단(www.ju.ac.kr/hk)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063-220-3201~3, 3207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는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능형기계부품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과정'에 선정됐다.

지능형기계부품 사업평가 '최우수'

전주대 산업공학과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는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능형기계부품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과정'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4학년도 지능형기계부품사업은 산업공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약 1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산업공학과 전공교육과 특성화 3Star 교육과정인 신뢰성 설계-검증-평가 교육, 3D스캐닝 및 역설계 교육, 솔리드웍스, 리카디언 교육으로 CAx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파이썬을 이용한 빅데이터 교육, AI 자율주행 이론 교육 등도 운영 중이다.

이에 참여학생들은 매년 독일, 일본으로 국외현장학습을 통해 스마트 제조 우수사례 및 산학협력 모델을 탐방하고 있다. 또한 국내 우수 기업과 산학프로젝트를 진행, 학생들의 취업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2024년도에 한국기계공학회, 생산제조학회, 농업기계학회에서 우수논문상 및 캡스톤디자인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산업공학과 이창호 교수는 "최우수과정에 선정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미래형 수송기기 분야의 인재로 양성해 전북 산업의 인력양성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교육청 모집 '2024 AI 디지털 교과서 초등 적용교원 연수' 위탁 용역 선정

전주교대, 내년 2월 10일까지 추진... 테크빌교육 등 참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모집한 '2024년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AI 디지털 교과서 초등 적용교원 연수' 위탁 용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용역은 약 33억원 규모의 연수 사업으로 전주교대가 주관하고, (주)에스엘아이평생교육원과 테크빌교육(주)이 참여해 2025년 2월 10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전주교대는 전북형 AIDT 연수 로드맵 '러닝저니(Learning Journey)'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역량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7만 전북교원'을 비전으로 △디지털 수업 혁신 역량 개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개발 △다불어 성장하는 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

전주교대는 교육연수원을 전담 부서로 배정하고 사전 온라인 연수와 현장 중심의 교수법 위주 대면 실습 과정을 거쳐 성과공유회 등 사후관리까지 책임진다.

특히, 전북교육청 소속 선도교사 중 107명, 전문강사 98명을 확보해 연수 대상 맞춤형 역량을 갖춘 베테랑 강사를 투입한다.

박병춘 총장은 "강사진들이 갖춘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을 연구하는 교직 문화 형성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디지털 교과서의 안정적인 도입과 교원의 미래 역량 개발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